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생활환경을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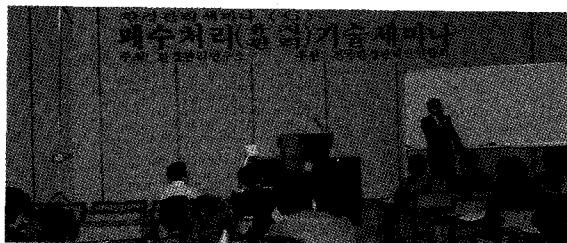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정광모)는 제10회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16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생활환경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한 생활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아·태환경경영연구원 한상우원장의 「우리나라 자원사용실태와 대책」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환경관리연구소

폐수처리기술세미나



환경관리연구소(소장·이용운)는 산·학·연 협동의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8일~20일 3일간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폐수처리유지 관리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폐수처리에서의 유지관리부문에 중점을 둔 이번 기술세미나에는 환경처 폐수관리과 안상선사무관의 「폐수관리의 정책방향」에 관한 특별강연과 건설기술연구원 김갑수 환경실장의 「폐수전처리 및 슬러지 처분」 등 환경관리우수사례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여성, 환경과 발전」



환경은 아껴쓰는 습관을 갖는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인식을 갖고 환경에 실천적 자세를 갖자는 취지로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회장·홍연숙)은 지난 3월 18일 프레스센타에서 「여성, 환경과 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폐기물의 실태 및 대책과 자원의 재활용방안 등이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여성의 실천적 역할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즉석에서 환경과 여성의 자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사)환경보전협회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



(사) 환경보전협회(회장·정수창)는 지난 3월 23일~27일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환경분야에 관계된 기기, 약품 및 부품 등을 전시하는 「제14회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을 가졌다.

해마다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국내외 환경오염방지기기 제조업체 및 관련부품업체와 해외의 우수한 환경관련업체가 참가해 국제전시회로 자리 를 굳히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 47개업체, 미국·일본을 포함한 9개국 46개업체가 참여하여 8백여종의 제품을 선보였다.